

구역공과 제3권 (1단원 : 천국 시민이 받을 복) (제7과) 화평케 하는 자의 복

- 본문 : 마태복음 5:1-12
- 요절 :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9)
- 찬송 : 468장(새찬송가 410장), 270장(새찬송가 508장)

공과내용

인류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된 수많은 분쟁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세기만 해도 인류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치렀고, 지금도 지구상 이곳저곳에서 분쟁의 소식이 끊임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의 부재 현상은 비단 국가나 민족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 있는 여러 사회 계층간에도 존재하며, 심지어는 화평의 산실이어야 할 가정에서조차도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분쟁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회의 각 계층간에 불화가 심화되고, 가족간의 화목을 상실한 가정이 점점 늘어만 가는 현실은 무슨 까닭일까요? 이는 사람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한다면 그 자신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어디서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란 어떤 사람이며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화평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여야 합니다.

‘화평’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서로 만날 때나 헤어질 때 나누는 히브리어 ‘shalom’이라는 인사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분쟁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 대신 영속적이며 충만한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화평스러운 상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류에게는 한갓 염원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끝없는 불화 가운데서 분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19~20)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화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천국의 평화를 누리며 어디서나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갈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2. 성도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개성이나 살아온 인생 경험이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살아가는 관계상,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로마서 12:18) 하신 말씀을 좇아 가급적이면 모든 문제를 대화로써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에 비추어 다툼과 갈등의 대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성격상의 성급함에 기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한 인간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매사에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며, 오래 참는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트거나 유지하려면 때로는 경제적 또는 시간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오해로 인한 비방을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평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한다면 반드시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이웃과 사회와 민족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될 것입니다.

3.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함은,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화평을 깨뜨리고 불화를 조장하는 일을 한다면 아무도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제대로 감당할 때라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민족은 가문을 중시하여 훌륭한 조상을 두었음을 자랑으로 여기며, 조상의 이름에 걸맞은 행실을 하려고 힘쓰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자답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곤경에 처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에게서 화평케 하라는 사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많은 수고를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화평케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를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